

(727)

조

신

주제 106  
(2017)

2







## 차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 .....	1
태양이 솟은 백두의 집 .....	2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다시고 .....	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여 .....	8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자주화위업을 위하여 .....	10
흥모의 마음을 감아 .....	12
온 세상에 만발한 불멸의 꽃 김정일화 .....	14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계기로 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성대히 진행 .....	16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시여 .....	20
통약산기술에 일떠선 물비누생산기지 .....	24
인민소비품생산에 기여하는 공장으로 .....	26
평양버섯공장 .....	28
월드컵을 안고온 선수들 .....	30
문수지구에 펼쳐진 병원촌 .....	32
새형의 조명등과 과학자 .....	36
최여남 소녀 피아노 연주자 .....	38
국가와 사회의 보호속에서 .....	40
력사유적 현주사 .....	41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사회주의 조선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회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오늘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르고 조선 인민이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된것은 결코 력사의 흐름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만고의 영웅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은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선군태양으로 영생 하고계시며 그이의 혁명력사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 속에 계속 흐르고있다.

글 최광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 태양이 솟은 백두의 집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어린시절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36(1947)년 3월

광명성결과 더불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는 조선의 천만군민의 마음은 그이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더욱 끝없이 달려가고있다.

백두산에서 남동쪽으로 수십리 떨어진 소백수골의 울창한 수림속에 위치하고있는 백두산밀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삼천리 강토를 빼앗은 일제와의 결사전을 선포한 열혈의 투사들에 의해 주체 25(1936)년 9월에 꾸러진 후 해방(1945. 8. 15.)을 맞이할 때까지 이 나라 민족해방투쟁의 중심적령도거점이었던 이곳에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다.

1940년대 전반기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던 격동적인 력사의 전환기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적극화하시면서 일제 격멸을 위한 최후결전에 전체 조선민족을 총동원하기 위한 전민항쟁을 성숙시켜나가지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1(1942)년 2월 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주체 조선, 선군조선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할 위대한 태양이 솟아 오른 민족의 일대 경사였고 대통운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총대로 조선인민에게 조국해방과 민족재생의 서판을 안겨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오신 항일의 녀성 영웅이시며 백두의 여장군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일가분들은 모두 조선의 근대, 현대력사에 뜻깊은 자욱을 남긴 이름난 애국자, 혁명가들이시였다.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인민의 령도자, 민족의 걸출한 영웅으로서의 품모를 갖추고 성장하실수 있게 한 고귀한 터전이었다.

그와 함께 이 나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은 그이의 담력과 기상을 키워준 요람이었다.

예로부터 조선에서 으뜸가는 명산으로 일러오던 백두산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반제민족해방전쟁의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자욱을 즐기 줄기에 새기는것과 함께 절세위인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품에 안게 되어 더욱더 이름떨치게 되었다.

글 김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월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167만 4 610여리,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로정의 총연장길이다.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이 초강도강행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6개나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시며 고락을 함께 나누시는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락으로 여기시었다.

현실속에 들어가야 좋은 착상이 떠오르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대로 로선이 되고 정책이 된다고 하시며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현실속에서 인민의 념원과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바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도 나오고 긴장한 전기문제를 풀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방도도 나왔으며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모든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토지정리 등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올 구상도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늘 현지에 나가시여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시며 그들의 신심을 북돋아주시고 열의를 불러일으키시었다.

자신께서 잠시라도 걸음을 늦추면 그만큼 조국의 전진이 떠진다고 하시며 하루동안에만도 공장에서 농촌으로, 서해지구에서 동해지구로 몇천리씩 오고가시며 초인간적인 강행군길을 걸으신 그이이시었다.

하기에 조선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인민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지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9월

않은 곳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시대정신을 창조하시고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였다.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군군인 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하시고 전당과 온 사회가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일반화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강행군현지지도에 의하여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련이어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었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져 이 땅우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희한한 사변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7월

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인공지구위성들이 우주로 날아오르고 금속, 화학,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 되는 과정에 조선은 지식경제강국으로의 역사적이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솟아나고 국토관리, 감자농사, 양어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선군시대 본보기

들이 창조되었다.  
정녕 한평생 사라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있어 조선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으로 치달는 일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것이다.  
글 정경복



룡양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7월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창작한 서예와 그림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1월



새집들이한 제대군인신혼부부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월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9(2000)년 6월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 어 주 시 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하나의 조선, 통일된 조선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념원을 안으

시고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강토에서 태를 묻으며 살아온 조선



6.15공동선언발표 8돐기념 민족통일대회장 주체 97(2008)년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당하는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온 겨레에게 통일의 새 아침을 안겨 주시려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나라가 분렬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통일로선으로 변함없이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이 강화함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의 세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 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리표가 마련되었으며 온 강토에 통일열기가 차넘치는 특기할 사변이 일어났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었으며 활력소였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조국통일위업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였다.

북남사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는 북과 남의 체육인들 주체 91(2002)년



개성공업지구건설 착공식 주체 92(2003)년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온 겨레를 기쁘게 하는 민족공동의 소중한 열매들이 마련되었으며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련대련합이 실현되었다.

숭고한 애국, 애족의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

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거세차게 흐르는 자주통일의 대화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글 김정



금강산관광과 즐긴 가족 및 친척 상봉을 비롯한 북과 남사이의 래왕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웨. 웨. 뿌썬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함께 해방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7월



등소평 중국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 주임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6월

##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와 세계평화와 안전, 친선과 단결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언제나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주정치, 선군혁명령도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심으로써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북아시아 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있던 지난 세기 90년대의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의 진리성과 과학성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하심으로써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평양선언은 세계혁명적당들의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타격

을 주고 사회주의제건을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탁월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평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세계 수많은 나라 대표단들을 만나시고 쌍무관계와 호상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어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불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주체48(1959)년 1월 소련을 방문하신 때로부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8월까지 18차례 걸쳐 외국방문을 하시였으며 그 로정의 연장거리는 9만 8천km에 달한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세계평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국제관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글 김현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0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5월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디아왕국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7월

##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품모로 하여 세계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매혹된 세계인민들의 경모의 정은 그이께 드린 383개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에도 어리어있다.

조선을 40여차례 걸쳐 방문하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와 숭고한 도덕의리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력에 탄복한 캄보디아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누크는 주체93(2004)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 캄보디아왕국큰목걸이독립훈장과 함께 캄보디아왕국대십자훈장을 드리였다.

세네갈의 대십자가국가사자훈장과 라오스의 최고훈장인 끼얏띠쿤훈장, 팔레스티나의 성스러운 꾸드스별훈장, 예질트의 최고훈장인 닐목걸이 훈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드린 많은 나라의 훈장들에는 새 사회건설을 위한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고 세계자주력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에 대한 높은 존경과 흠모가 어려있다.

쿠바의 런대성훈장, 이전 소련의 쓰딸린훈장, 칼 맑스은메달, 세계평화와 안전, 국제관계발전에 이바지하신 공적을 높이 칭송하여 드린 리비아의 세계친선훈장과 국제관계발전을 위한 연구소기념메달 등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드린것이다.

네팔왕국 까프만두시리사회를 비롯하여 세계의 이름있는 도시와 대학, 정당, 사회단체들에서는 인류의 진보와 과학문화발전에 공헌하신 그이를 명예시민과 명예원사, 명예교수와 명예박사, 명예위원장, 명예지도자로 추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지성어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을 드리면서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은 인류자주위업의 앞길을 밝히는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오비앙 느게마 므바쑤고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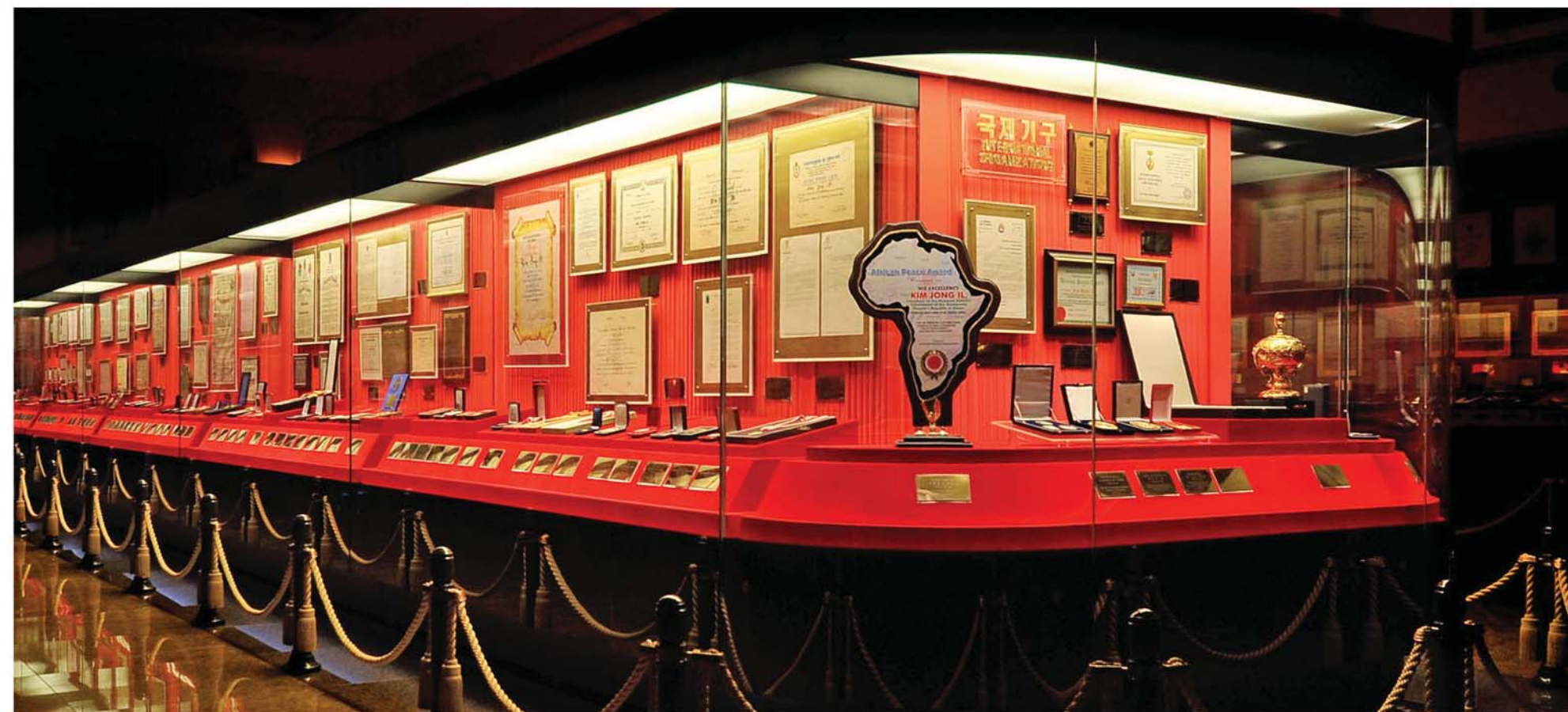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최대의 흠모심을 담아 그이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을 드리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린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은



로씨야 원동국립종합대학 명예법학박사복을 입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4(2005)년 10월

희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정화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글 김선경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당들과 당수들, 국가수반들과 개별적 인사들, 국제기구들과 지역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삼가 올린 훈장과 메달들을 전시하여놓은 훈장보존실의 일부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일본의 저명한 화초원예가인 가모 모도데루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자연계의 모든 꽃은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위인을 열렬히 흠모하며 따르는 인류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멸의 꽃 김정일화이다. 지금으로부터 근 30년전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새 품종의 꽃을 만들어내려는 일념을 안고 오래동안 온갖 심혈과 정력을 기울여온 일본의 저명한 화초원예가 가모 모도데루는 마침내 베고니아과의 수많은 꽃가운에서 가장 아름답고

## 온 세상에 만발한 불멸의 꽃 김정일화

탐스러운 꽃을 육종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만민이 경모하는 위인의 존함을 모시려는 자신의 절절한 소원을 담아 꽃의 이름을 《김정일화》라고 명명하였다.

주체 77(1988)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46돐을 맞으며 그는 활짝 피은 김정일화를 그이께 선물로 드리였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세계화초계에 걱정의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주체 80(1991)년 5월 체스꼬슬로벤스키에서 진행된 제 12차 국제화초전시회에는 네

를란드를 비롯한 13개 나라의 103개 화초생산 회사와 단체 및 연구소에서 출품한 820여개 품종의 진귀하고 이름난 꽃들과 새로 육종해낸 꽃들이 전시되었다.

여기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특별상과 금메달을 수여받은것은 조선에서 출품한 김정일화였다.

타는듯 한 붉은색의 매혹적인 꽃잎, 역세계 꽃을 받쳐든 굵은 줄기와 심장형의 푸른 잎...

보는 사람마다 지어 그 어떤 경우에도 팽철성을 잃지 않는다는 심사원들까지도 최고의 최고라고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어난것은 화초계에 서의 일대 혁명이다. 이런 꽃이 세상에 태어난것은 전인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김정일화에 특별상과 금메달이 아니라 <왕상>을 제정하여 수여해야 한다.》

...

국제원예학회는 주체 93(2004)년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베고니아과의 새 품종으로 등록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주체 88(1999)년의 중국 99권명세계원예박람회와 주체 93(2004)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베고니아전시회 그리고 주체 101(2012)년의 2012네델란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와 주체 103(2014)년의 몽골국제화초전시회 등 수많은 원예박람회 및 화초전시회들에서 최고상을 수여받았다.

오늘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활짝 피어나고있다.

주체 84(1995)년 스웨리에에서 북유럽 김정일화협회가 결성되어 김정일화보급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조직이 출현한 후 인도네시아, 일본,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김정일화협회, 애호회 등이 수많이 조직되고 김정일화온실들이 련이어 개관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뜻깊게 진행된 불멸의 꽃전시회만도 100여차나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흠모의 마음과 더불어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위인칭송의 꽃, 영원한 태양의 꽃으로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할것이다.

글 김선경



주체 80(1991)년 체스꼬슬로벤스키 브라티슬라바에서 진행된 제 12차 국제화초전시회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된 금메달과 증서



주체 93(2004)년 미국에서 진행된 베고니아전시회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한 1등상 땀기와 새 품종 991호로 정식 등록된 증서



2006중국심양세계원예박람회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한 금상과 상장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2012네델란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의 최고상인 1등상이 수여되었다.



2012상해박람회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출품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  
대회가 지난해 1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가 열린 평양체육관은 붉은 당기와 여러  
가지 장식물들로 단장되었다.

대회에는 당조직들을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위조직으로 꾸리고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초급당위원장들과  
중앙과 지방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회사를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백배천배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만리주로를  
활짝 열수 있는 근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당  
대회이후 전당적인 첫 대회로 소집한 이번 대회  
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  
운 전환적계기로 뿔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이번 대회가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원만히 진행됨  
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게 되리  
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개회  
를 선언하시었다.

대회에서는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의 력사는 주체적인 기층당조직사상을 제시  
하시고 완벽하게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  
로동당을 강철같은 초급당조직들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혁명  
위업완성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시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우리 당력사에 영원불멸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급당증시사상  
과 령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기본으로 하여 당조직들의 사명과 임무, 당  
생활지도의 목적과 방향도 새롭게 밝혀주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령도  
에 의하여 초급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  
났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난기간 초급당조직  
들의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뿐만이  
아니라 초급당조직들에 내재하고있는 결함  
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두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총돌격, 총대진해나아갈  
결의들을 다지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대회  
에서 력사적인 결론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  
에 따라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전당초급  
당위원장대회를 소집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당대회 못지 않게 중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강력한  
파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초급당은 포병에 비유해 말하면 화력중대  
와 같다고 하시면서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우리 당의 전투력이며 초급당을 강화하는데  
전당강화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며 조선  
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조직들은  
초급당을 증시하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당  
조직을 최정예전투대로 다지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  
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초급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시기  
초급당조직들의 기본임무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기본전투구분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초급당조직들은 무엇보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역사적인 결론을 하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2월

다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해 당 단위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적극 옹호하고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사명이며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사업 성과는 당정책관철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 조직들은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모든 초급당 조직들은 당의 군사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군사과업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 조직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 후방사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최대로 증대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초급당 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것을 당 정책관철의 근본열쇠로 틀어쥐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며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극 활용하는데 생산장성의 예비가 있고 당정책관철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참으로 명언중의 명언이라고 하시면서 초급당일군들이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며 모든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여 후방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고 그에 토대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 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도록 당적으로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초급당 위원장들은 해당 단위 정치위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고 지배인과 기사장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그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일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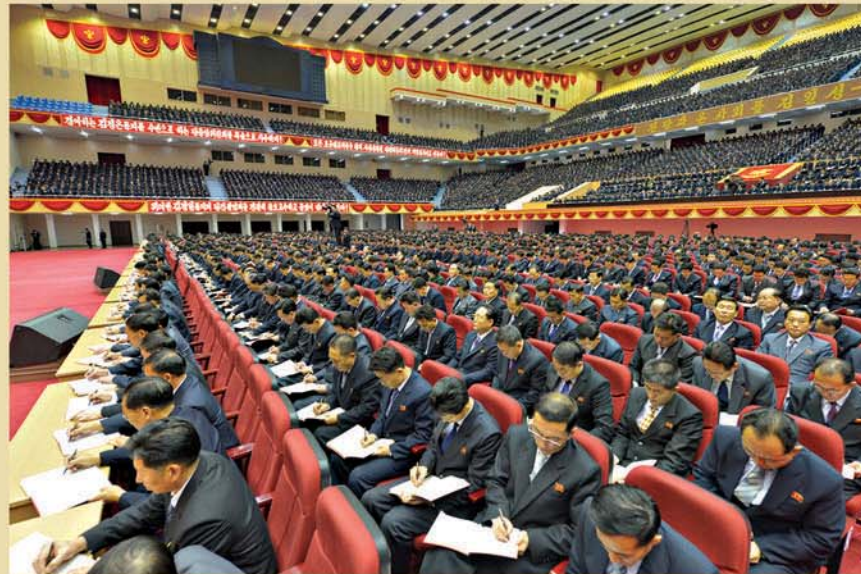
초급당 조직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내부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당과 혁명대오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 조직들은 오직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하며 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치의 탈선이나 한걸음의 헛디딤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들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초급당 조직들은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을 초급당 강화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당세포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하며 오늘 의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촌리당사업에서 힘을 넣어 할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현시기 농촌리당사업에서 중심은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초급당 조직



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초급당위원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행정관료화를 결정적으로 없애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초급당위원장들에게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활로를 밝혀준 강령적 문헌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

적기치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지도하시고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원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한 혁명적인 총진군대회로 되였다.

글 김정





무장장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5(1986)년 4월

#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시여



주체37(1948)년 2월 8일은 항일의 불길 속에서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된 뜻깊은 날이다.

이날과 더불어 천만군민은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발전력사에 새겨진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무기는 군인과 함께 무장력의 2대요소이다. 사상과 신념이 강하고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될 때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해방후 것처럼 어려웠던 시기 정규적혁명 무력건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력건설에서 중요한것은 모든 군인들을 현대적무기와 군사장비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항일의 군복차림 그대로 축대와 잡초만이 무성한 험한 길을 걸으시며 평양시의 평천벌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총도 만들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수 있으며 대포나 탱크도 능히 만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었으며 이렇게 세워진 병기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친히 공장에 나오시여 시험사격까지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빈터우에서 그 기초를 마련해주신 국방공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국방건설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면서 국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의 자립성과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인민군대의 현대화와 전민무장화실현에 필요한 무장장비들을 새로 개발하고 그 성능을 높이고록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의 국방공업은 마음만 먹으면 현대적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는 자립적국방공업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의 국방공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백두밀림의 연길폭탄과 평천리의 기관단총으로 시작된 자위의 병기창은 오늘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정밀하고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련속적으로, 다발적으로 개발생산하게 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국방공업과 국방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는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핵탄두폭발시험에서도 대성공을 이룩함으로써 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고 미제의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핵위협을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자랑스런 승리를 이룩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적인 국방공업이 있어 조선인민군은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서 그 위용을 높이 떨쳐가고있다.

글 최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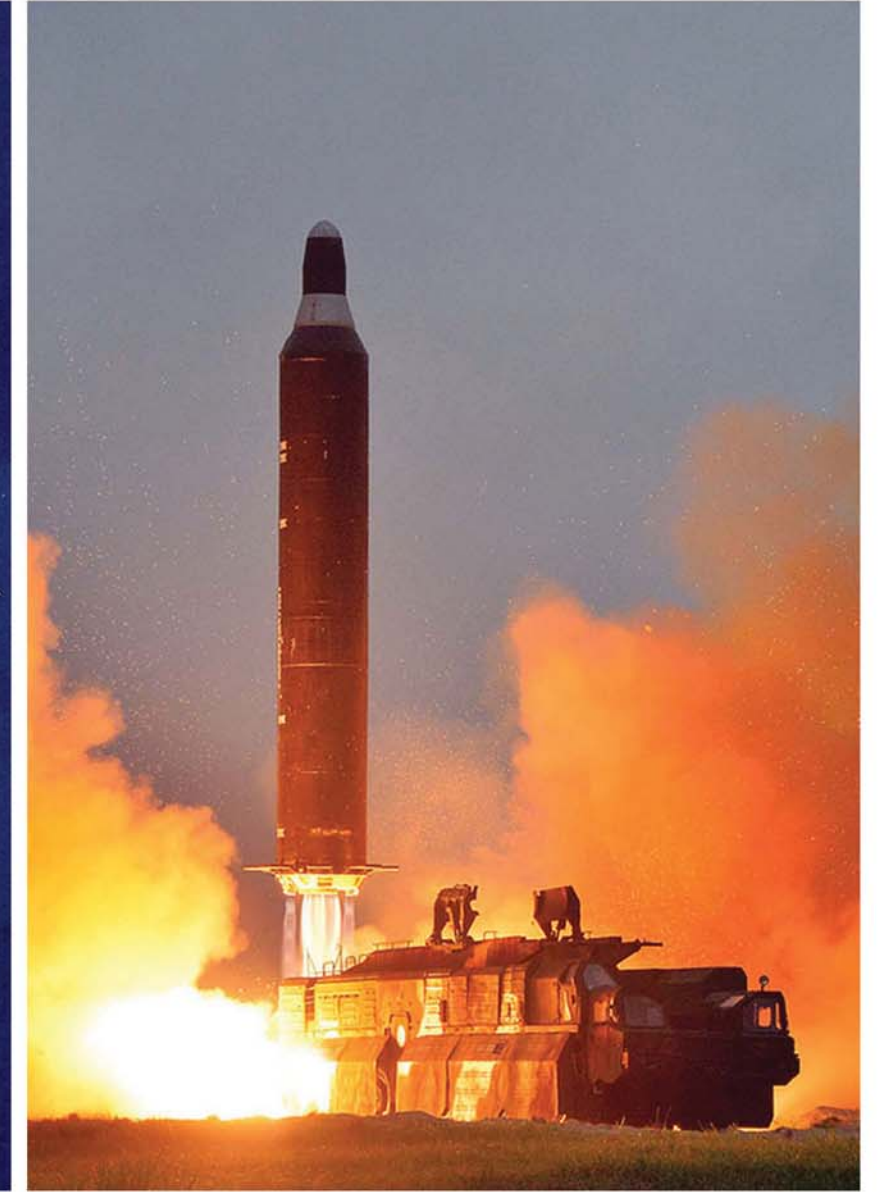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3월



오늘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침략자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0월

## 룡악산기술에 일떠선 물비누생산기지

룡악산비누공장이 지난해 새로 건설되어 조업하였다.

과학적인 기술공정설계에 기초하여 건축면적과 생산공간을 조성한 공장에서는 설비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였으며 원료준비, 진공유화, 물처리, 혼합교반,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무인화하였다.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통합생산체계도 구축해놓은 공장에는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여러가지 물비누포장용기들을 생산하는 사출성형기들은 물론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분석검증하는 첨단설비들도 갖추어져있다.

지난해 10월 새로 건설된 룡악산비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비누생산기지가 일떠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에서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질 좋은 샴푸, 린스, 그릇세척제, 가루비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물비누와 세척제의 가치수와 생산량을 늘이고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데 힘을 넣으면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도 하고있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활발히 해나가고있다.

비누생산용원료와 향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룡악산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제품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글 김효심



통합생산조종실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되었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10월

## 인민소비품생산에 기여하는 공장으로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은 크지 않은 공장이지만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공장이 주체68(1979)년 1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유서깊은 만경대를 비롯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에게 의의 있는 수많은 기념품들을 생산하여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장이 지난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들을 개진하고 현대적인 자크생산공정,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 등을 더 갖추어 놓음으로써 기념품만이 아니라 갖가지 인민소비품들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변되었다.

지난해 10월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크생산공정, 멜라민수지제품생산공정, 기념품생산공정, 제품건본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자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자크의 형태와 색깔을 다양화, 다색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관철에 펼쳐나선 공장에서는 인건사를 비롯하여 나라의 여러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부속자재들을 가지고 연간 천수백만m에 달하는 자크들을 생산할수 있으며 모든 기대들이 PLC화되어 각종 규격의 자크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검사설비도 갖추으로써 생산된 자크들의 질검사도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보기에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 다양한 형태와 여러 종류의 멜라민수지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호평받는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사진 진영호 글 최의림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기술장비들을 갖추어놓고 여러가지 용도의 갖가지 자크들을 생산하고있다.



멜라민수지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고있다.





# 평양버섯공장



흰곤봉버섯



비질버섯



팽나무버섯



비늘먹물버섯 (닭다리버섯)



느타리버섯



버섯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평양시 교외의 통성구역 화성동지구에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평양버섯공장이 새로 건설되었다.

지난해 10월말에 준공한 버섯공장은 공업적방법으로 버섯을 다량생산하고있는 기본생산건물들과 여러동의 궁룡식태양열온실, 보조생산건물들로 이루어져있다.

원료의 분쇄와 기질성형, 균배양을 비롯하여 공장의 생산공정들은 자동흐름식으로 되어있다.

무균화,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공장에서는 재배실과 배양장들의 면적리용률을 최대로 높일수 있게 생산설비들의 배치도 합리적으로 하여 많은 에네르기와 로력을 절약하고있다.

생산공정들은 통합생산체계에 의하여 실시간 감시 및 자동조종되고있어 종균접종실과 배양실들의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함량을 측정하고 버섯생장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버섯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식용버섯과 약용버섯들을 사계절 제단식으로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발효법에 의한 버섯기르기를 공업적방법으로 하는 재배기술

을 받아들이었을뿐만아니라 멸균법에 의한 버섯생산기술도 적극 활용해나가고있다.

멸균법을 버섯재배에 받아들여 형태보존성이 좋고 기질주입과 파종용종균접종에서 손로동을 없애면서도 제한된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공업적으로 버섯을 다량생산하고있다.

공장의 재배장들과 궁룡식태양열온실들마다에서는 흰곤봉버섯, 비늘먹물버섯, 팽나무버섯을 비롯한 다양한 버섯들이 키돋움하며 자라고있다.

조업한지 몇달밖에 안되는 기간이지만 많은 버섯들을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한 공장에서는 버섯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사진, 글 안철원







누르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조선여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2016년 국제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쟁취한데 이어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의 승리는 조선여자축구의 밝은 전망을 그려볼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충복

# 월드컵을 안고온 히녀들

-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는 여자축구 선수들을 환영하는 수도시민들

조선의 여자축구선수들이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뽐내며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주체91(2002)년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는 참가국들의 여자축구전도를 내다볼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체육애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 조별리그전에서부터 뽐내며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여자축구팀과 프랑스팀사이의 결승경기가 지난해 12월 3일에 진행되었다.

승전소식을 기다리는 조국인민들의 기대와 당부를 새겨안고 출전한 조선여자축구선수들은 높은 축구기술과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과시하며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해나갔다.

결승경기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랑팀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하여 시작부터 치열하였다.

빠른 기동과 높은 기술동작으로 공격과 방어를 능숙하게 해나가는 랑팀의 경기활동으로 문전에서의 혼전이 거듭되는 속에 경기시간 17분경 아쉽게도 조선여자축구팀이 먼저 실점을 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여자축구선수들은 방어로부터 공격으로의 이행속도를 높이면서 적극적인 공격전을 틀어쥐어 귀중한 세골을 넣었다.

결국 결승경기에서는 조선여자축구팀이 프랑스팀을 3:1로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전문병원들과 종합병원들이 집중되어있는 병원촌이 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몇개의 병원만이 있던 이곳에 최근년간 현대적인 병원들이 해마다 일떠섬으로써 병원촌이 형성되었다.

오늘 병원촌에는 녀성들을 위한 평양산원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옥류아동병원, 이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류경치과병원과 눈치료를 전문으로 하면서도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인 류경안과종합병원,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연구 발전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고려의학연구원 등 여러 보건시설들이 있다.

이곳에 있는 병원들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이 뜨겁게 어려 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만도 유선촬영실, 렌트겐촬영실, 항암치료실 등 진단 및 치료실들과 연구실들, 수십개의 입원실, 70여종에 수만점에 달하는 의료설비들과 의료기구들이 갖추어져있을뿐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박사원과정을 마친 30~40대의 실력가들이 의료진과 연구진영의 주력을 이루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주체101(2012)년에 개원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온 근 10만명에 달하는 녀성들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현대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로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에서는 아이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의료봉사를 받고있으며 류경치과병원에서는 누구나 미세임플란트고정원에 의한 교정치료를 비롯하여 높은 수준의 치과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지난해 10월에 건설된 류경안과종합병원

# 문 수 지 구 에    펴 려 진   병 원 촌



평양산원과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고려의학연구원



김만유병원







옥류이동병원



에서는 첨단수준의 의료설비들이 갖추어진 치료과들과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근로자들이 시력검사와 치료도 받고있을뿐아니라 안경 봉사까지 받고있다.

병원촌은 공장, 기업소들이 없어 공기가 맑고 깨끗할뿐아니라 도로망이 편리하게 형성되어 구급차들이 멈춤없이 달릴수 있으며 직승기 착륙장도 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화원속에 솟아난 병원촌에서 인민들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절감하고있다.

사진 김윤혁, 김주혁 글 김선경



류경안과종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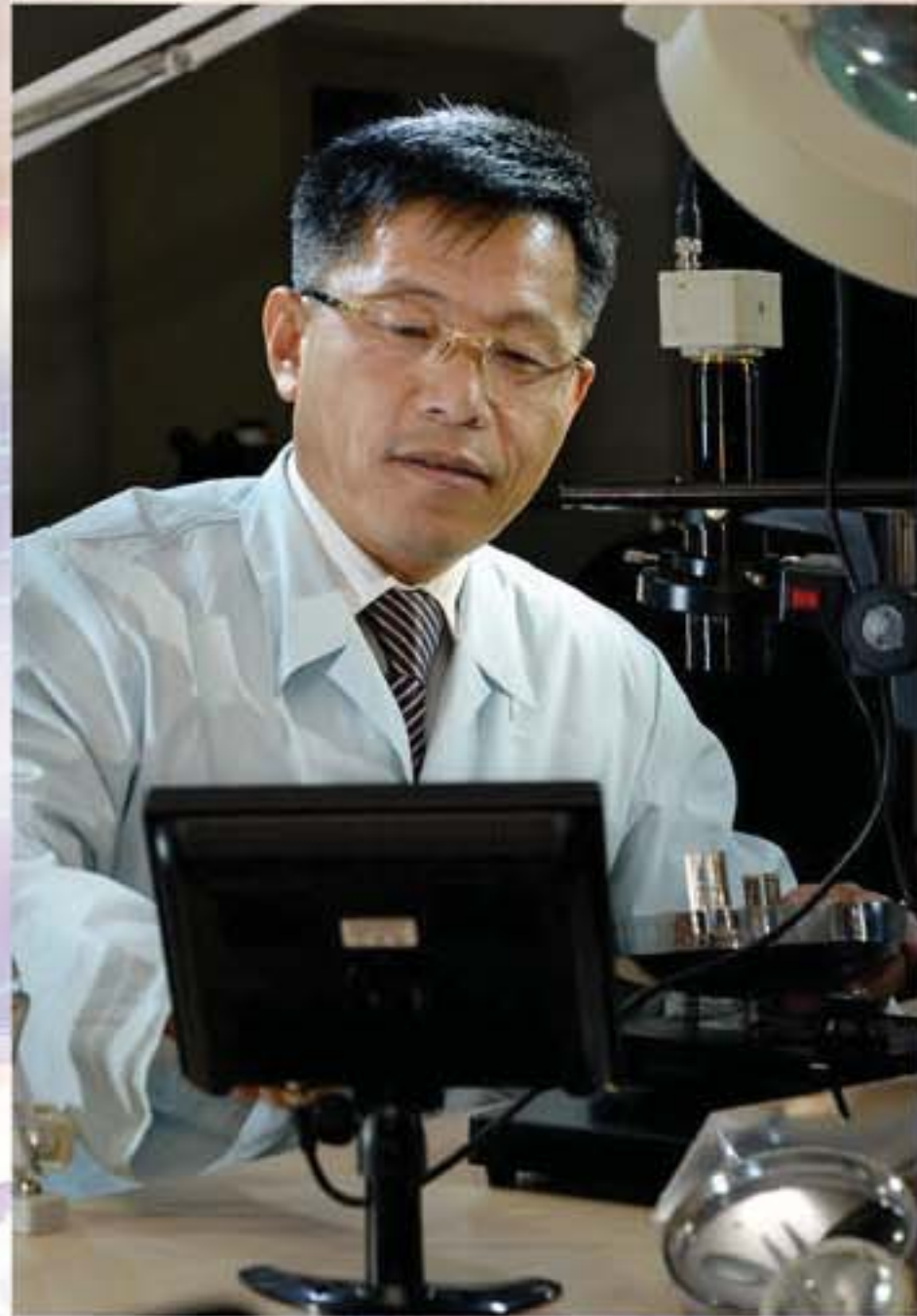


류경치과병원





# 새형의 조명등과 과학자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조명기구연구실 실장 박사 석영범

주체86(1997)년에 진행된 제25차 제네바국제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다기능전동기보호장치를 내놓아 금메달을 수여받은 당시 29살의 청년과학자 석영범.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간 과학탐구의 길을 발명으로 이어온 그는 조명공학발전에서만 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40여건의 발명을 하였다.

지난해에는 조명공학분야에서 첨단기술인 《보조 반사경을 가진 레드(LED)투광등》을 발명하여 세계 지식소유권기구에서 발명가메달을 받았다.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조명기구연구실 실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그는 최근에는 전력소비를 낮추면서도 빛효율을 높이는 새형의 조명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아직까지 조명공학계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조명등을 착상하였다.

그리하여 반사경에 광원을 마주 설치한 레드(LED)투광등을 발명하였다.

레드(LED)의 빛을 거의 전부 조명하려는 대상에 투광할수 있는 이 극집초형레드(LED)투광등은 종전의 투광등에서는 60%이하였던 빛효율을 거의 100%로 높임으로서 빛을 조명하려는 대상에 전부 집광시킨다.

이 기술의 발명으로 비침도는 5~10배 밝게 보장하면서도 전력은 95% 절약되었다.

세계지식소유권기구에서 발명가메달을 수여받은 발명품인 《보조반사경을 가진 레드(LED)투광등》은 빔퍼짐각이 0.9°로서 빔리용률과 집초능력이 매우

높다.

조명등발명과 함께 생산지도 꾸림으로써 그는 연구실을 연구와 개발, 제작과 도입이 일체화되게 하였다.

그리고 자동종합조종장치도 발명하여 조명의 무인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가치있는 발명으로 조명공학발전이 적극 이바지하고 많은 경제적리익을 준 과학적성과로 하여 석영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사의 학위와 2.16과학기술상을 받았다.

사진 안철룡 글 김태현



새로 개발한 조명등들의 현실도입을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는 연구사들



제25차 제네바국제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에서 받은 금메달상장 주체86(1997)년



세계지식소유권기구에서 석영범에게 수여한 발명가메달과 증서 주체105(2016)년



가족과 함께



# 뛰어난 소녀 피아노연주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 학생 마신아

주체100(2011)년부터 주체104(2015)년까지 지난 여러해동안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와 상크트-뵘페르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진행된 음악회들과 피아노축전, 국제음악축전들에서는 전문가들과 관람자들을 매혹시킨 나 어린 소녀피아노연주가 있었다.

이름있는 음악가들이 출연한 이 무대들에 나섰던 당시 10살전후의 어린 소녀.

그는 오늘 조선의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1음악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마신아학생이다.

《천성적인 재능을 가진 어린 음악가》, 《발달된 절대음감과 선율에 대한 기억력, 구상력을 가진 뛰어난 재능아》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온 마신아의 뛰어난 연주솜씨는 어린이들의 재능을 귀중히 여기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꽃피어났다.

주체98(2009)년 12월 당시 6살인 신아어린이의 피아노연주와 청음시창 그리고 초견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주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신아의 뛰어난 음악적재능을 헤아려보시고 앞으로 잘 키우면 세계적인 피아노연주가 될것같다고 교시하시면서 전문교육과 관련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신아가 국제무대에서 재능을 마음껏 펼쳐가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 있어 7살 어린나이에 로씨야의 차이콥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부속 중앙음악학원에 입학하여 재능을 꽃피워온 신아는 피아노신동으로 학원에서만이 아니라 로씨야음악제의 찬탄을 자아냈다.

로씨야의 이름있는 음악회와 국제음악축전들만이 아니라 까자흐스탄에서 진행된 국제고전음악축전에서도 마신아의 피아노연주를 무대에 올렸다.

신아는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들에서도 뛰어난 연주로 파문을 일으켰다. 10살나던 해에는 로씨야에서 진행된 모스크바 제10차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 11살때에는 제9차 라흐마니노브명칭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들에 참가하여 각각 1등을 하였으며 도이칠란트에서 진행된 제4차 리스트명칭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에서는 1등상과 리스트작품 최고연주상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 뿔스카에서 진행된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



마신아는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0차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과 국제음악축전들에 참가하여 뛰어난 연주솜씨를 보여주었다.

에서는 1등상과 경연최우수연기상, 마자르 게오르기 페렌즈기금제정 쇼팽작 마주르카 최우수연기상 등 여러개의 상을 받았다.

신아는 로씨야의 《스뵘와코브명칭》국제기금, 《새로운 이름들》국제기금수상자로 되었으며 로씨야와 까자흐스탄, 도이칠란트의 텔레비죤들과 인터넷들에서는 18차에 걸쳐 그의 피아노연주를 방영하였다.

-13살소녀의 연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훌륭하다. 마치 쇼팽이 환생하여 피아노를 연주하는것 같다.

-지금껏 많은 피아노연주자들을 보아왔지만 조선의 마신아소녀처럼 어린나이에 《리스트의 야상곡》이나 《베토벤의 쏘나타》와 같은 높은 형상을 요구하는 피아노곡을 저렇게 훌륭히 연주하는것을 처음 본다.

여러 나라 피아노교수들과 음악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마신아의 연주에 대해 이렇게 평하였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꿈을 안고 마신아는 미래로 달리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래현



마신아가 제24차 쇼팽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을 비롯한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쿨에서 받은 1등상과 특등상, 특별상들의 일부







# 국 가 와 사 회 의 보 호 속 에 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가 펼쳐지고있는 조선에서는 장애자  
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  
하여 진행된 기념모임에서는 장애자  
들이 자기들의 행복 넘친 모습을 펼쳐  
보여었다.

청년중앙회관 1 500석극장에서 진행된  
기념모임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관계부문 일군들,  
장애자들과 그 가족들, 시안의 근로자  
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과 조선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2016년 장애자보호사업  
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소개하는 례화편집  
물이 방영되고 장애자에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다.

음악과 손말시 《사랑하노라, 원수님  
높이 모신 나의 조국을》로 시작된 공연에  
서 출연자들은 혼성6중창 《사랑하노라》,  
남독창 《인정의 세계》, 너독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 등의 종목들을 무대에 올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 은동지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  
움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무용들인 《3인무》와 《꿈》, 《옹헤야》,  
외국만화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 그리고 요술종목도 펼친 장애  
자들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  
았다.

이날 모임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장애자들의 다양한 생활을 담은 사진  
들은 참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사진 홍광남 글 김현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에서는 장애자에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다.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는 참가자들

## 력사유적

# 천 주 사

천주사는 평안북도 녕변군 녕변읍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1392년-1910년)의 절이다.

아름다운 경치와 유난히 붉게 피는 진달래로  
하여 관서8경의 하나로 알려진 약산동대의 동남  
쪽 산허리에 자리잡고있는 천주사는 1684년에  
처음 세우고 1722년에 개건되었다.

철웅성축성비에는 1684년에 옛성을 고쳐  
쌓으면서 천주사를 세웠는데 그 건물이 80여  
칸이라 하였다.

오늘 천주사에는 중심건물인 보광전과 그  
맞은편의 천주루 그리고 안마당 량쪽에 몇채  
의 부속건물이 남아있다.

천주사는 산비탈면에 지으면서 필요한 축대  
들을 여러겹 쌓았다.

안마당과 천주루사이에는 높이 3. 4m에 달  
하는 2단의 축대가 있고 천주루와 보광전사이  
에는 3단으로 높이 3. 9m의 축대를 쌓았다.

그리하여 안마당에서 보광전까지에는 높이  
7. 3m에 달하는 5단으로 된 축대가 있다.

보광전은 정면 3칸(10. 28m), 측면 2칸  
(6. 95m)의 겹처마합각집이다.

약간 배부를사한 두리기둥우에는 바깥 7포,  
안 11포의 포식두공을 짜올렸다.

정면의 문은 기하학적무늬의 국화무늬를  
흫음새김하여 화려하게 꾸몄다.

안에는 부처들이 있다.

천주루는 특색있게 꾸민 다락집이다.

가운데다락을 중심으로 그 량쪽으로 뻗은  
복도끝에 앞으로 내민 다락이 날개마냥 련결  
되었는데 동쪽의것은 《향일헌》, 서쪽의것은  
《망월대》이다.

그 량쪽다락뒤로 부속건물들이 뻗었는데 그  
것은 마치도 옛관청건물인듯 한 느낌을 준다.

이 절간에는 단청그림들이 많다.

그 가운데는 배놀이하는 장면, 쉬는 장면,  
전투하는 장면, 산놀이하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 장식무늬(천주루의 대들보무늬) 등이  
있다.

천주사는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과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서 보존관리  
되고있다.

사진 최명식 글 박병훈



천주루의 일부



보광전에 있는 불상들







정  
일  
봉

